

<번역 논문>

## 단어 또는 문구 사용과 맥락상의 의미 — 번역에 있어서 의미론적 논점들의 재고찰 —

로버트 베스컴(Robert Bascom)\*

박덕준 번역\*\*

### 1. 서론

“단어들이 의미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미들이 단어들을 갖고 있다”고 종종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의미의 기본 단위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단어들과 문구들이 실제로는 맥락들(contexts) 안에서 용례들(usages)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다. 이러한 맥락들은 그 자체로 정신과 육체의 상태들과 공정들을 촉발시키는 소통의 요소들이며, 따라서 의미의 해석으로 합당하게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의미”를 전통적 단어나 문구에서부터 사용의 맥락들로 재배치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사용의 맥락들은 음운론적 패턴들, 때로는 문법적 구조들, 때로는 상호성 같은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그리고 물론 가장 흔하게는 (전통적으로 “의미 영역들”[semantic domains]로 제시되던) 어휘적 패턴들과 범주들에 의해 형태가 갖추어진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의미론적 구조들은 그들의 맥락들로부터 의미를 추출해낸 바로 그 단어

\* United Bible Societies Global Translation Advisor. [rbascom@biblesocieties.org](mailto:rbascom@biblesocieties.org). Robert Bascom, “Terms or Phrase Usage and Contextual Meaning: A Reexamination of Semantic Issues in Translation”, *The Bible Translator* 72:2 (2021), 175-188.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성경해석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신학 교수. [pb4dad@gmail.com](mailto:pb4dad@gmail.com).

들과 구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언어학자들은 맥락에 근거한 의미 같은 것에 대해 오랫동안 암시해 왔지만,<sup>1)</sup> 무엇이 의미론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재진술은 지연되고 있다. 본고는 연구의 범위와 실례들을 주로 성경 본문의 번역에 국한할 것이나, 이 견해들이 거기서 유효하다고 발견되는 만큼 모든 곳에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의미란 무엇인가?

다수의 인지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의미는 수신자에게 있어서 어떤 종류의 정신적 표상(representation) 즉 이미지, 관계 또는 마음의 상태에 대한 촉발로 보아야 한다.<sup>2)</sup> 그러므로 의미는 단어나 구문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있을 때 수신자의 마음에 예상되는 정신적 공정들의 활성화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이것은 종종 단지 특정한 이미지를 촉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조지 래코프(G. Lakoff)는 유명하게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이를 예증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보여주었다.<sup>3)</sup> 사실 일단 그 단어가 내뱉어지면 어떤 종류의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마크 터너(M. Turner)는 그가 혼합(blending)이라고 부르는 것 즉 혁신적이면서 동시에 명약관화한 의미망들(semantic networks) 간의 관계들의 촉발(그는 “감옥 미끼”[jail bait]라는 예를 드는데, 이는 성년 남성들의 관점에서 보는 미성년 소녀들을 지칭한다)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다.<sup>4)</sup>

지금까지 든 이러한 예들은 청자의 마음과 화자의 마음에 유사한 정신적 표상이 유발됨을 보여준다.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들과 일치하도록 연결되어 있다 — 말하자면, 협력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 — 는 풍부한 증거가 있다.<sup>5)</sup> 그렇지만 마음의 상태들은 어떠한가? 만약 누군가

1) 예를 들어, G. Lakoff,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G. Fauconnier and M. Turner, *The Way We Think* (New York: Basic Books, 2002).

2) G. Fauconnier and M. Turner, *The Way We Think*, 353-355.

3) G. Lakoff,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White River Junction, VT: Chelsea Green Publishing, 2004).

4) G. Fauconnier and M. Turner, *The Way We Think*.

5) M. Tomasello, *The Cultural Origins of Human Cogn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또한 거울 뉴런(mirror neurons)에 관해서는 V. S. Ramachandran, *The Tell-Tale Brain: A Neuroscientist's Quest for What Makes Us Huma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1).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자 노력한다면, 조롱하는 사람의 마음에 교만과 우월감을 촉발하는 것뿐 아니라 조롱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수치와 굴욕감을 촉발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마음 이론(theory of mind) 또는 인지적 관점 수용론(cognitive perspective-taking)의 전수자들이 보여주듯이,<sup>6)</sup> 인간은 유년기(4세경)에 다른 사람들이 특정 맥락에서 무엇을 생각하거나 느낄 것인지 추측(또는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들과 느낌들과 구분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고통을 주면서도 유익한데, 이것이 상호 간의, 그러나 동일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들의 촉발을 허용한다.

### 3. 어휘 의미론(lexical semantics)과 문제점들

#### 3.1. 어휘 의미론은 지나치게 어휘적이다(Lexical semantics is too lexical)

어휘 이외의 언어적 측면들(특히 화용론적 측면들)이 때로 의미 분석에 포함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의미론은 사실 어휘 의미론이라고 여길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관행의 예외는 시제와 상(aspect)의 논의와 관련된 직시(deixis)의 고찰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존이 친구 집으로 운전하다가 주방에 가스레인지로 켜 놓았다는 점을 기억했다”(As John drove to his friend’s house, he remembered he had left the stove on in his kitchen)고 하자. 화자의 관점에서 보면, 언급되고 있는 과거의 시점(drove … remembered)이 있지만 또한 그 이전의 시점(had left the stove on)이 존재한다. 이 발언에서 직시의 시점들은 “이” 또는 “저”라는 어휘의 사용에 담겨있지 않고, 도리어 시간을 나타내는 (과거/대과거의) 문법적 관계로 제시되어 실현된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방사형(radial) 어휘 구조들 말고도 다른 의미 구조들뿐 아니라 다른 언어적 망들(linguistic networks)도 설명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은 음운학에서부터 문법, 사회학에 이르는 언어학적/기호학적/소통학적 요소들에 근거한 망들(networks)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의미론은 전방위적 언어 현상들에 걸쳐 분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지, 어휘에 국한해

6) 예를 들어, C. A. Hynes, A. A. Baird, and S. T. Grafton, “Differential Role of the Orbital Frontal Lobe in Emotional Versus Cognitive Perspective-Taking”, *Neuropsychologia* 44:3 (2006), 374–383.

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마 더 중요하게도 의미론적 해석은 다양한 언어 현상들의 맥락(context)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아야지, 현상들 자체에 있다고 보면 안 된다.

### 3.2. 어휘 의미론은 지나치게 방사형 모델이다(Lexical semantics is too rad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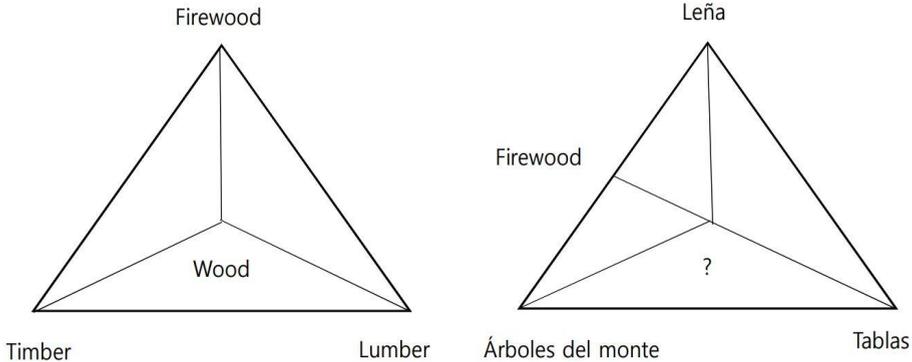
조지 레코프는 대부분의 어휘 의미론이 지나치게 방사형 범주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주장한다.<sup>7)</sup> 종종 이러한 범주들은 원형적(prototypical)이라고 간주된다. 레코프는 “어머니”를 예로 드는데, 이것은 원형적으로 생물학적 어머니들(예: 존의 어머니)을 언급하는 데에서 시작하지만, 곧 환유적인 것(예: 위탁모[foster mother])으로 확장되고 더 나아가 은유적 용례들(예: 주요 광맥[the mother lode], 매우 중요한 전쟁[the mother of all battles])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심적, 원형적 사용은 동기화된(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확장들을 발생시키는데, 이것들이 중심부의 원형으로부터 발원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방사형 모델은 어휘 의미론에 국한하더라도 유일한 의미 구조가 아니다. 레코프에 의하면, 다른 대체 구조는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s)이다. 비록 그가 예를 들지는 않지만 이 견해는 다른 인지언어학자들에게서 발견되는데, 그들은 방사형 구조를 갖지 않지만 언어적 대표물이 없는 중심지(center) 또는 중심부(hub)와 모두 연결된 의미망들(영역들[domains]이라는 용어보다 다수가 선호함)을 언급해왔다. “도심”(centroid)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 모델은 방사형 구조와 달리, 연관된 어휘들 덩어리의 중심부에 특정 어휘가 없다.

스페인어에서 이런 예를 찾는다면 영어에서 “나무”(wood)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 될 것이다. 혹자는 “화목”(firewood), “목재”(lumber, unfinished for building), “재목”(timber, felled trees in a forest) 등을 세분해서 언급할 수 있겠지만, 모두 나무이다. 그러나 만약 스페인어에서 일반적, 중심적 대체용어인 *madera*로 시작한다면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이는 방화범이 아니라면 아무도 *madera*를 태우지 않기 때문이다. 화목에 해당하는 단어는 *leña*인데, 예를 들자면 벽난로나 야영지 모닥불에서 태울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나무(또는 나무에 대한 용어 사용)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스페인어 사용자들은 여전히 *madera*를 나무에 대한 중심 용어라고 생각한

7) G. Lakoff,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83-85.

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Madera*가 사용자들에게는 “중심” 용어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 사용 패턴을 보면 *leña*가 단순히 *madera*의 방사형 확장(영어에서 “firewood”가 “wood”에서 나온 것처럼)이 아니라 도심 구조(centroid structure)를 갖고 또한 의미망(semantic network)에서 독립적이지만 연결된 교차점(node)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단어 *leña*와 *madera*의 관계는 인접 교차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 그것들은 연결되어 있지만 둘 중 어느 것도 서로에 대해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아래의 그림은 교차점들로 구성된 의미망들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려는 시도인데, 영어 용어들에 대한 방사형 구조는 좌측에 그리고 스페인어 용어들에 대한 도심 구조는 우측에 배치했다. 나중에 다른 예들을 통해 더 많은 도심 구조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3.3. 어휘 의미론은 종종 통계 또는 어원/본질에 의존하여 지나치게 본질주의적이다(Lexical semantics is often too essentialist either by statistics or by etymology/essence)

번역자들은 종종 성경 본문의 단어 또는 문구가 번역 불가라고 불평한다. 그들은 “우리 언어에서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고 말하곤 한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어휘적이고 본질주의적이다. — 즉, 이 접근은 그 단어 또는 구문이 번역자의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을지 모르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들을 갖고 있거나 “원초적”(natural) 범주에 속해 있다고 본다. 이는 의미론을 지나치게 협소한 관점을 통해 생각하도록 번역자를 가둔다. 용어들과 구문들은 많은 다양한 패턴들에 근거한 사용의 맥락들(contexts of usage)을 갖고 있고, 이 사용 패턴들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

로 사상화(mapping)할 수 있다. 이 “사용 지도들”(usage maps) — 즉 다른 구조적 패턴들에 근거한 사용의 맥락들 — 안에서 우리는 함께 의미의 해석에 대해 협상한다.

어휘 의미론은 적어도 두 개의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본질주의적이다. 첫째로, 맥락에 놓인 용어나 문구에 대한 전통적인 의미들의 위치가 통계 분석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한 용어나 문구가 제한된 맥락으로 보이는 곳에서 천 번 등장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맥락들에서 그 용어가 특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표시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 지도들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다른 관점은 “핵심”(core) 본질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하나의 용어 또는 구문에 대한 하나의 핵심적(또는 본래의) 의미가 방사형 확장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견해인데, 이에 따르면 그 핵심적 의미는 계산이나 통계 분석을 통해 찾아가기보다는 의미들의 경중을 따져 찾아낸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용어들의 뜻(senses)과 의미(meanings)에 대해 말하는 것이 지나치게 용어/구문 지향적이다. (본고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근거들 때문에) 맥락들(contexts)이 의미의 해석을 촉발하고 용어들과 구문들이 (그리고 다른 많은 언어적 요소들이) 단지 이러한 맥락적 해석들에 상응하는 사용 지도들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 경중을 재든지 숫자를 세든지, 용어들이 뜻을 갖는다는 견해는 의미가 사용 맥락들(contexts of usage) 안에서 해석된다는 견해보다 유용하지 않다. 용어들과 구문들이 스스로 기본적인 뜻을 갖는다는 견해에서 그것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또한 번역자들을 해방시켜 의미론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용어들과 구문들 자체를 넘어서 번역하는(또는 수신자의) 언어에서 재구성해야 할 문맥들로 향하도록 도와준다.

#### 예: 네페쉬(nefesh)와 헤세드(hesed)

네페쉬(nefesh)라는 용어는 종종 “영혼”(soul)으로 번역되는데, 복수일 경우 때로는 단지 (많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인다(예: 창 12:5).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삶의 원리”(life principle) 같은 것으로 이해되므로, “영혼”이 보편적인 번역이다. 그러나 그 용어의 어원이 “목”(neck)이나 “목구멍”(throat)임을 가리키는 몇몇 경우들이 있고, 여기에서 도출된 번역이 (특히 우가릿 자료들에서) “식욕”(appetite)이다. 이 번역의 실례는 NRS의 시편 69:1의 번역에서 발견된다: “물들이 내 목까지 올라왔나이다”(waters have come up to my neck). 통계적 의미 분석은 이렇게 구체화된 지시들

(references)을 그 용어의 다른 뜻으로 기재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본질주의적 의미론은 “목구멍”을 중심적 의미로 취하고 거기에서 “삶의 원리”와 “사람”이라는 의미들을 도출할 것이다. — 사람이 목구멍으로 숨을 쉬므로 “생명”이나 “사람”이라는 의미조차도 쉽게 도출된다. 그러나 맥락론자들에게 이것들은 해결해야 할 논쟁거리들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 모든 “의미들”(또는 용례들)을 의미망에서 연결하는 사용 지도가 있을 뿐이지, 숫자를 세거나(통계) 경중을 따져(핵심적 또는 본질주의적 의미) 그들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헤세드(hesed)라는 용어는 또 하나의 유사한 예를 보여준다. 통계적 측정에 의하면, 이 용어는 가장 자주 “신실함”(faithfulness) 또는 “충성”(loyalty)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약간 미묘한 뉘앙스를 갖는데, 이 용어가 관계에 있어서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갖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세드의 보편적인 주체는 하나님이고 사람들은 객체 또는 수혜자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시편 136편인데, NRS는 헤세드를 “변함없는 사랑”(steadfast love)으로 번역한다. 그러나 본질주의적 의미론자들은 이사야 40:6에서 발견되는 용례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NRS는 “모든 사람들은 풀이요; 그들의 지속성은 들의 꽃 같다”(All people are grass; their *constancy* is like the flower of the field)라고 번역한다.

통계학적 의미론자는 이사야 40:6에 은유가 사용되고 있으며, 은유들은 비교를 위해 필요한 것들만 빌려오기 때문에 “신실함”의 사회적 측면이 식물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본질주의자들은 지속성이라는 핵심적 의미로 출발하는 것이 더 단순하다고 응답할 것인데, 그 용어가 인격적 교류(하나님과과의 관계 포함)의 맥락들에서 사용될 때는 사회적 측면(그래서 “신실함”)이 공짜로 추가된다고 할 것이다. 맥락주의자들은 다시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인데, 단순히 다른 사용 패턴들과 맥락에 의해 결정된 의미들이 있을 뿐 용어 자체에 다른 의미들(또는 뜻)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종류의 의미망들을 맥락적 사용 지도들에서 찾아낼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나중에 스스로에게 “역시 그렇지”(just so)라고 할 이야기들이다. 다시 말해서, 레코프에 의하면 그것들은 예측 가능하지(predictable) 않은, 동기화된(motivated) 패턴들을 드러낸다.

## 4. 의미 영역들

### 4.1. 혼합 영역들/망들(Mixed domains/networks): “key” <> llave

“Key”라는 단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대다수의 영어 사용자들에게 자물쇠나 문을 여는 열쇠의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이는 원형(prototype) 효과들에 기인하거나 또는 많은 단어들에 있어서 그 언어의 사용자들의 마음에 그 단어에 대한 “최상의” 표상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sup>8)</sup> 그러나 많은 다른 종류의 key들이 있다. — 피아노[건반], 컴퓨터[자판], 지도[상징 설명], 암호[해독지], 악보[조], 그리고 문제들[수학 기호 설명서]. 만약 영어에서 그 단어에 대한 본질주의적 영역(domain)을 사상화(mapping)하려고 한다면, 접근(access) — 아마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 에 관한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원형으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집 열쇠는 작지만 큰 집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잠긴 상자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영역을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사상화하려고 노력하자마자 곤경에 빠진다. 집이나 자물쇠에 대한 열쇠는 스페인어로 llave이다. 그러나 llave는 또한 수도꼭지의 손잡이 또는 렌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llave의 “영역”은 사물들을 열거나 닫으려고 또는 켜거나 끄려고 잡아 돌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욱 곤란하게도, 키보드의 자판들/건반들(컴퓨터, 피아노)을 부를 때는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조작하는 단추 모양의 사물들을 일컫는 teclas를 사용한다. 스페인어에서 접근과 관련된 영역이 있지만, 그것에 해당하는 단어는 clave이다.<sup>9)</sup>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영역”(domain)이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된 망들이면서 종종 구체화된 개념들(돌리는 손들, 누르는 손가락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의 접근)로 돌아오도록 안내하는 다양한 의미 관계들과 구조들을 묘사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그 망들을 구동하는 것은 맥락들과 사용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물론 한번 구축되면, 망들은 의미 구조들의 다음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8) G. Lakoff,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58-60.

9) 역사적으로 llave와 관련이 있지만 지금은 독립적이다. R. Bascom, “The Role of Culture in Translation”, 8-9.

<u>영어</u>	<u>스페인어</u>	
{ Wrench(렌치) Faucet(수도꼭지 손잡이) Key(열쇠)	Llave Llave Llave	} 손으로 돌리는 도구들
(physical)		
{ Piano key (피아노 건반) Computer key(컴퓨터 자판)	Tecla del piano Tecla de la computadora	} 손으로 치는 도구들
Access tools(접근 도구들)		
(abstract) { Key of map(지도 상징 설명) Key of code(암호 해독지) Key of musical composition (음악 작품의 조) Key – important(중요한)	Clave del mapa Clave del código Clave musical Clave – importante	

위의 도표에 나타난 교차-언어적 의미 관계들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할 수 있다:

wrench(렌치)		(llave)
faucet(수도꼭지 손잡이)		(llave)
key(열쇠)	=	llave
(key)(건반/자판)		tecla
(key)(나머지)		clave

#### 4.2. 짝이 맞지 않는 교차-언어적 영역들(Mismatched cross-linguistic domains): 성경 히브리어의 촨(*tson*)과 세(*seh*)

성경 히브리어에서 양과 염소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 중 두 용어가 번역자의 눈길을 끈다. 그것은 촨(*tson*)과 세(*seh*)이다. 특이한 점은 두 용어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촨(*tson*)이 일반적으로 한 무리의 짐승들을 지칭하는 데에 비해, 세(*seh*)는 촨(*tson*) 중의 개별 짐승을 지칭하는데, 둘 다 양이나 염소(또는 둘 다)를 지칭한다. 이것은 성경 히브리어에서 (또는 다른 어떤 언어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번역자에게는

독특한 어려움을 준다. 확실한 결정을 위해 좋은 맥락상의 실마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증거 없이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 해석자들은 일반적으로 “양”을 선택해왔다. 그러나 어휘의 항목들은 *촌(tson)*에 대해서는 “양 그리고/또는 염소의 떼”라는 범주를, *세(seh)*에 대해서는 “한 마리 양 또는 염소”라는 범주를 고집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영어 사용자들의 귀에 익숙하지 않은 정도의 모호함을 준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사실은 명백하게 성경 히브리어에서 *촌(tson)*과 *세(seh)*라는 단어들(예를 들어 “짐승 떼”)을 촉발시킨다는 점이다.

#### 4.3. 언어 구조들이 발견되는 다른 언어적, 소통적 영역들(Other linguistic and communicative spheres where semantic structures can be found)

##### 4.3.1. 음운론(phonology)과 음소상징(phonaesthemes)<sup>10)</sup>

여러 학자들 중 특히 벤자민 버젠(B. Bergen)은 음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이는 흥미로운 의미 구조에 주목했는데, 바로 음소상징(phonaesthemes)이다.<sup>11)</sup> 실례들은 대략의 의미 사상들(mappings)과 함께 아래에 제공될 것이다.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gl-*로 시작하는 많은 영어 용어들이 빛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빛의 반사를 촉발하는 것들과 광원에서 발산하는 빛을 개념화한 것들을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이 발산은 인간의 눈 자체(예: “glower”[노려보다])에서 나온다고 여겨졌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눈이 빛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고대의 관념을 반영한다. 한편 *sn-*으로 시작하는 많은 용어들은 거의 의성어인데, *코*(또는 돌출한 *코*)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많은 *sl-* 용어들은 (때로는 중첩되는) 두 개의 의미 교차점들(semantic nodes)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slippery”(미끄러운)이고 나머지는 부정적인 평가이다. 물론, 이러한 음운론에 바탕을 둔 의미 구조들은 모든 경우의 소리 패턴들을 지배하지 않는다. *gl-*과 *sn-*과 *sl-*은 때로는 음소상징(phonaesthemes)으로 기능하고, 다른 때는 단순히 관련이 없는 용어들(예: *gloat*[교만을 떨다], *snip*[썩둑 자르다], *slake*[해갈하다])의 시작 부분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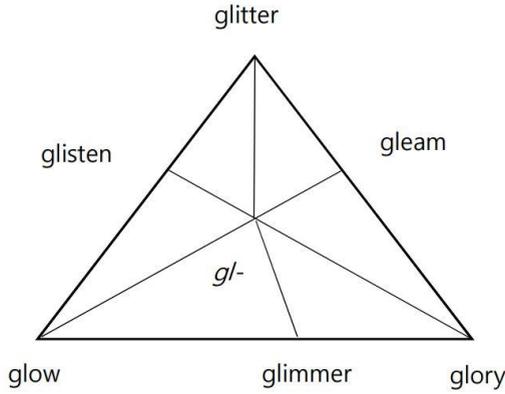
10) [역주] 음소상징을 ‘상징연음’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윤관희, “Production and Processing of Phonaesthemes in L2 English”, 『언어』 43:4 (2018), 781-806.

11) B. Bergen, “The Psychological Reality of Phonaesthemes”, *Language* 80:2 (2004), 290-311.

**g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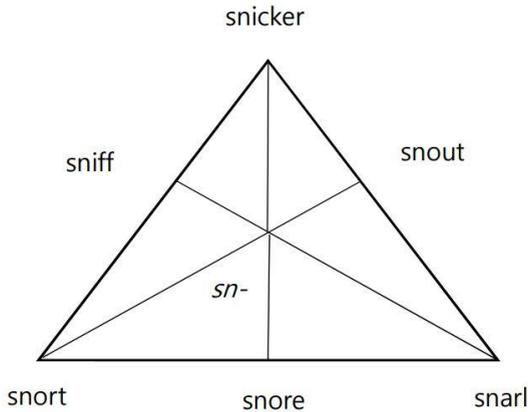
glitter[반짝이다], glisten[반짝이다], gleam[밝게 빛나다], glint[반짝이다], glimmer[희미하게 빛나다], gloss[반짝이다] (reflection of light[빛의 반사])

glower[노려보다], glare[노려보다], glance[힐끗 보다], glimpse[힐끗 보다], glow[빛나다], glory[영광] (transmission of light[빛의 전달])



**sn-**

snarl[으르렁거리다], snout[돌출한 코], snicker[코웃음치다], sniff[코를 킁킁거리다], snort[콧김을 불다], snore[코골다] (nose[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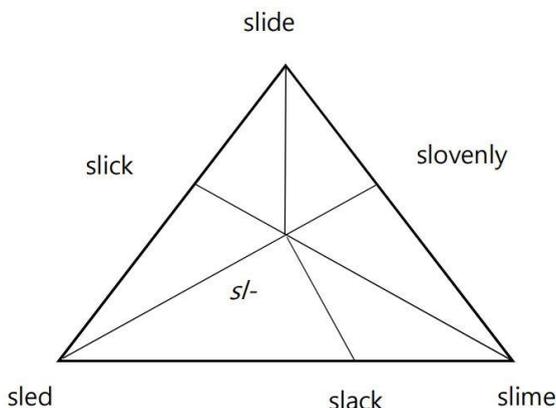


**sl-**

slide[미끄러지다], slick[윤기 나다], sled[썰매타다], slip[미끄러지다]

(slippery[미끄러운])

slack[느슨한], slouch[축 늘어지다], sludge[찌꺼기], slime[점액질], slosh[액체가 튀기다], slash[썩둑 자르다], sloppy[엉성한], slug[민달팽이], sluggard[게으름뱅이], slattern[행실이 나쁜 여자], slut[행실이 나쁜 여자], slang[비속어], sly[교활한], slither[미끄러지다], slow[느린], sloth[게으름], sleepy[졸린], sleet[진눈깨비], slipshod[엉성한], slay[살해하다], slant[경사], slovenly[엉성하게], slough[늪지], slum[빈민가], slump[부진], slobber[침 흘리다], slaver[침 흘리다], slur[중상], slog[힘겹게 일하다] (negative)



#### 4.3.2. 문법(Grammar)

예: “in the corner”(en el rincón)[구석에서] vs. “on the corner”(en la esquina)[모퉁이에서]

만약 스페인어에서 시작하면, 어휘 의미론은 이 예에 대해 꽤 유용하다. 내부의 모서리에 대해서는 rincón이 적합한 단어이지만, 외부의 모서리에는 esquina를 사용한다. 두 경우 모두 전치사는 동일하게 en(“in” 또는 “on”)이다. 그러나 영어로 바꿀 때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내부와 외부의 모서리에 대한 용어가 모두 “corner”라면 영어 사용자들은 두 형태의 “corner”의 차이를 어떻게 나타낼까? 이 용어와 함께 사용하는 전치사를 통해서이다. 내부의 모서리에는 “in the corner”(구석에서)가 쓰인다. 그러나 외부의 모서리는 “on the corner”(모퉁이에서)로 표현한다. 전치사들 역시 사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내부 또는 외부의 모서리의 이미지를 촉발하는 것은 전치사와 명사의 결합(combination)이다.

### 예: 성경 히브리어 운문(동의적 병행법)과 시편 38.11[12]에서의 바브(waw) 사용

NRS My friends and companions stand aloof from my affliction,  
and my neighbors stand far off.

GNB My friends and neighbors will not come near me, because  
of my sores; *even* my family keeps away from me.

이 예는 성경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 발생하는 단순한 용어 수준의 사상(mapping) 불일치처럼 보일 수 있고, 히브리어의 다른 예들(헤세드, 네페쉬)과 함께 열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and”(그리고) 또는 “even”(…조차)을 번역들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브(waw)의 가변적 의미가 아니라, 동의적 병행법(semantic parallelism)의 구조 자체이다. 이 의미론적 맥락에서는 바브(waw)가 단순한 접속사에서 “더욱 그러하다”(and more so)와 같은 의미로 변환된다.<sup>12)</sup> 동의적 병행법이 있는 경우 최선의 영어 번역은 첫 번째 행과 둘째 행의 논리적 관계에 달려있다. 위의 경우 “friends”(친구들), “neighbors”(이웃들), “companions”(동료들), “kinsmen”(친척들)의 번역들은 번역자들이 성경 히브리어 운문의 동의적 병행법의 근본적인 원칙(“A, and what is more, B”)<sup>13)</sup>에 따라 바브(waw)의 번역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에 달려있다.

#### 4.3.3. 화용론/적합성 이론(pragmatics/relevance) — 함의/함축(implication/implicature)

문법적(의미론적) 함의(implication)와 화용론의 함축(implicature) 간의 차이는 적합성 이론(relevance theory)의 지지자들에 의해 어떻게 적합성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예로써 사용된다. 이에 대한 특별히 좋은 예는 마태복음 1:25에서 발견된다:

12) 참조, J. Kuge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R.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Books, 1985).

13) 참조, J. Kuge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R. Alter, *The Art of Biblical Poetry*.

**함의(Implication)**

NRS but [he] had no marital relations with her *until* she had borne a son.

**함축(Implicature)**

GNB But he had no sexual relations with her *before* she gave birth to her son.

**필요 관계 없음(No necessary relation)**

DHH Y sin haber tenido relaciones conyugales, ella dio a luz a su hijo.  
And *without having* had conjugal relations, she gave birth to her son.

위의 번역들에서 “until”(…때까지)에서부터 “before”(…전에)로, “without having had”(“…를 갖지 않고”)로의 간단한 변화들은 문법적-의미론적 함의(NRS)에서부터 논리적인(또는 적합한) 약한 함축(GNB)을 거쳐 마지막으로 그리스어 절들 사이에 필요 관계가 전혀 없음(DHH: 이 번역은 예수의 탄생 이후 마리아의 처녀성에 대해 함의든 함축이든 무엇인가를 말하기를 회피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보인다)에 이르는 의미의 범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셋 모두 그리스어 ἔως의 옹호 가능한 번역들인데, 위에서 약술한 세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해되고 번역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어에서부터 사용 사상(usage mapping)에 불일치가 일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흥미롭게도 이 다양한 번역들에서 문법(함의)에서부터 화용론(함축/필요 관계 없음)으로 건너가고 있음이 발견된다.

의미론을 거의 배타적으로 어휘 안에 놓는 것은 언어학자들 사이에서조차 보편적이지 않음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적합성 이론가들은 의미론의 상당 부분이 화용론적 수준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기호학자들은 의미론을 소통 체계 안에 또는, 그들이 부르듯이, 기호들의 체계 안에 위치시킨다. 다양한 인지언어학자들은<sup>14)</sup> 의미론을 소통과 인간의 교류라는 더 폭넓은 맥락들 또는 구조들 안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한다.<sup>15)</sup>

14) 특히 G. Lakoff,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15) E. Goffman,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1974).

#### 4.3.4. 사회학(sociology) — 상호성(reciprocity)

의미 구조들을 발견할 수 있는 아마도 가장 특이하거나 예상 밖의 분야는 (아무리 폭넓게 보아도) 엄밀하게 말해서 언어학에 속하지 않은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또는 문화학)은 인간의 교류와 소통을 다루고, 따라서 그 범위 안에 의미 구조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구조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학의 보편적인 개념은 상호성(reciprocity)이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인사말들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형식들의 일치함(또는 적어도 수준을 맞춤)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Hey”	◇	“Hey” or “Hi”
“Hi”	◇	“Hi” or “Hello”
“Good morning/afternoon/ evening”	◇	“Good morning/afternoon/evening” or perhaps “Hello”

이 예들은 인사에 답할 때 어느 정도 유연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수준의 표현 사용을 고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사말은 상호성이 나타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고프만(Goffman)은 상호성의 협상을 거의 상거래의 용어들로 묘사했다. 그는 인간의 교류의 맥락들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징표(tokens) 교환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고프만은 아래에서 인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인용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아래의 인용이 그 개념을 명확히 드러낸다:

행위들 또는 사건들 즉 공식적인 메시지들을 동반하는 기호-매개물들(sign-vehicles) 또는 징표들은 놀라울 정도로 그 특징이 다양하다. 개인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칭찬이나 비난의 발언을 특정한 언어와 어조로 할 때 그것들은 언어적(linguistic)일 수 있다(Garvin and Riesenberg 1952).<sup>16)</sup> 개인의 육체적 움직임이 모욕 또는 아침을 전달할 때 몸짓(gestural)일 수 있고, 개인이 다른 사람보다 앞에서 문을 통과하거나 그의 좌측 대신 우측에 앉을 때 공간적(spatial)일 수 있다. 개인이 기꺼이 작업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침착하고 능숙하게 수행할 때 작업-내포적(task-embedded)이며, 개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말하거나 더 많은 주목을 받을 때, 소통 구조의 부분(part of the communication structure)일 수 있다.<sup>17)</sup>

16) P. L. Garvin and S. H. Riesenberg, “Respect Behavior on Ponape: An Ethnolinguistic Study”, *American Anthropologist* 54 (1952), 201-220.

17) E. Goffman, “The Nature of Deference and Demeanor”, *American Anthropologist* 58 (1956), 477.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대체로 언어적 징표들이지만, 그것들은 소통 사건의 맥락의 틀 안에 존재하며, 소통 사건 그 자체는 인간의 교류라는 맥락의 틀 안에 존재한다.

### 예: 독일어의 *bitte*

구체적인 경우가 독일어에서 *bitte*의 사용이다. 이 용어에 대한 대부분의 의미 분석들은 적어도 두 뜻을 기재할 것이다. “제발”(please) 또는 “실례지만”(excuse me)으로 가장 잘 표현된 요청, 그리고 “천만에요”(you’re welcome)라는 매우 다른 의미(또는 뜻)가 그것이다. 그러나 만약 고프만(Goffman)의 사회적 징표 이론(theory of social tokens)을 적용한다면, 이 용어의 용례의 의미 구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두 뜻이 있다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언어적 표징의 교환을 통한 사회적 관계들의 협상과 관련해 그 사용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덜 유용하다. 간단명료하게 말하자면, 어떤 종류의 사회적 교류의 맥락에서 누군가 “Bitte!”를 먼저 주면 잠시 후 “Bitte!”를 돌려받게 된다.

## 5. 결론

### 5.1. 맥락적 의미론이라는 개념은 순환논법의 한 예인가?(Is the Idea of contextual semantics an example of circular reasoning?)

본고의 논지에 대한 하나의 비판은 맥락적 의미론이 (다양한 구조들과 더불어)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으며 전통적 의미론이 모든 예들을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맥락적 접근은 모든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더 간명한 설명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의미론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보다 더 큰 다양성을 허용한다.

더 심각한 반론은 맥락적 의미론이 순환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즉 맥락들은 요소들(단어들, 구문들 등)로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 요소들은 각각 다른 것들에게 맥락들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존이 강하게 건반(들)을 내리쳤다”(John forcefully struck the key[s])는 즉각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는 이미지를 촉발한다. 보통 컴퓨터 자판들(keys)을 내리치지(strike) 않고, 지도의 상징 설명(key)이나 암호의 해독도(key) 등을 내려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동사 “strike”(내리치다)는 “key(s)”를

해석할 맥락을 제공한다. 그러나 “key(s)”도 마찬가지로 “strike”에 맥락을 제공한다. 이 “strike”는 “strike a match”(성냥에 불을 붙이다)나 “workers going out on strike”(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 등을 말할 때 촉발되는 종류의 “strike”가 아니다. 이것이 피아노 건반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특정한 행위인 반면, 다른 “strike”의 사용들은 성냥이나 노동자 같은 것들에 기반한 다른 의미의 해석을 촉발한다.

그러나 이 순환성은 논리적(logical)이기보다는 구조적(structural)이다. 맥락들은 통째로 접근이 되어, 각 부분은 다른 부분들에 대한 맥락에 기여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전체의 협상이 부분들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함께 일어나는데, 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다른 부분들보다 더 근본적이거나 중요하지 않다. 요소들은 맥락들을 결정하고, 맥락들은 요소들을 정의한다. 그리고 그 요소들을 단어들로 또는 구문들로 또는 맥락들로 볼 것인지는 단지 그 과정에서 언제 그리고 어디서 우리가 그것들을 분석할 것인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 5.2. 언어학적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들 내에서 의미 협상의 구조란 무엇인가(What is the architecture of meaning negotiation within linguistic and social communities)?

본고는 아래의 논점들을 다루었다:

1. 의미는 이미지, 관계, 개념 또는 마음의 상태조차 촉발하는 것(prompting)이고, 이 촉발은 항상 협상된다.
2. 의미의 해석은 맥락적(contextual)이고, 한 용어나 구문에 담겨있지 않다.
3. 맥락들은 어휘들의 맥락들에 국한되지 않지만, 음운론에서부터 문법, 화용론 그리고 적합성 이론에 이르는 언어학의 거의 모든 영역들 안에서 형성된 망들을 포함할 수 있고 포함한다.
4. 궁극적으로 의미 해석의 맥락들은 전통적 언어학을 넘어, 기호학과 소통 그리고 인간 교류(예: 사회학) 일반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 복잡함을 무시하고, 의미를 마치 어휘적, 방사형적, 통계학적(또는 본질주의적)인 것처럼 그리고 교차언어적으로(용어/구문 또는 영역에 있어서) 사소한 차이들이나 불일치만 갖고 있는 것처럼 취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번역자들에게 특히 그들의 원어와 다른 어족들

의 언어들(본고에서는 종종 셈족과 인도-유럽 어족 간의 차이, 때로는 동일 어족들 안의 차이도 살펴보았다)과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론에 대한 전통적 접근들이 붕괴되기 시작한다. 번역 작업을 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번역을 “바르게” 하기 위해 바른 단어나 구문을 찾아야 한다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견해의 한계들을 인식할 것이다. 의미의 맥락적 해석을 위해 모든 소통의 자료들을 사용하도록 해방된다면, 번역자들은 전통적으로 괴롭히던 문제들에 대한 창조적이면서 적합한 해결책들을 능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words)

맥락, 의미론, 망들, 의미, 촉발하다.

contexts, semantics, networks, meaning, prompt.

(투고 일자: 2023년 1월 30일, 심사 일자: 2023년 2월 24일, 게재 확정 일자: 2023년 2월 28일)

<참고문헌>(References)

- Alter, R., *The Art of Biblical Poetry*, New York: Basic Books, 1985.
- Bascom, R., “The Role of Culture in Translation” (Malaga, Spain: United Bible Societies’ Triennial Translation Workshop paper, 2000).
- Bergen, B., “The Psychological Reality of Phonaesthemes”, *Language* 80:2 (2004), 290-311.
- Fauconnier, G. and Turner, M., *The Way We Think*, New York: Basic Books, 2002.
- Garvin, P. L. and Riesenber, S. H., “Respect Behavior on Ponape: An Ethnolinguistic Study”, *American Anthropologist* 54 (1952), 201-220.
- Goffman, E., “The Nature of Deference and Demeanor”, *American Anthropologist* 58 (1956), 473-502.
- Goffman, E.,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1974.
- Hynes, C. A., Baird, A. A., and Grafton, S. T., “Differential Role of the Orbital Frontal Lobe in Emotional Versus Cognitive Perspective-Taking”, *Neuropsychologia* 44:3 (2006), 374-383.
- Kugel, J.,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 Lakoff, G.,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Lakoff, G.,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White River Junction, VT: Chelsea Green Publishing, 2004.
- Ramachandran, V. S., *The Tell-Tale Brain: A Neuroscientist’s Quest for What Makes Us Human*,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11.
- Tomasello, M., *The Cultural Origins of Human Cogn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약어>

- DHH Dios Habla Hoy (1979)
- GNB Good News Bible (1992)
- NRSV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1989)

<초록>

단어 또는 문구 사용과 맥락상의 의미  
— 번역에 있어서 의미론적 논점들의 재고찰 —

“단어들이 의미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미들이 단어들을 갖고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의미의 기본 단위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단어들과 문구들이 실제로는 맥락들 안에서 단지 용례들만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들은 그 자체로 정신과 육체의 상태들과 공정들을 촉발시키는 소통의 요소들이며 의미의 해석으로 합당하게 간주될 수 있다. 때로는 이러한 사용의 맥락들은 음운론적 또는 문법적 패턴들에 의해 (B. Bergen 참조), 때로는 상호성 같은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E. Goffman 참조), 그리고 물론 가장 흔하게는 (전통적으로 “의미 영역들”로 제시되던) 어휘 패턴들(일반적으로 방사형)과 범주들에 의해 형성된다. 인지언어학자들(예를 들어, Lakoff, Turner)은 오랫동안 이와 같은 것을 암시해왔지만, 무엇이 의미론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재진술은 지연되고 있다.